

# 현안과 과제

■ 창업 관련 국민의식 변화와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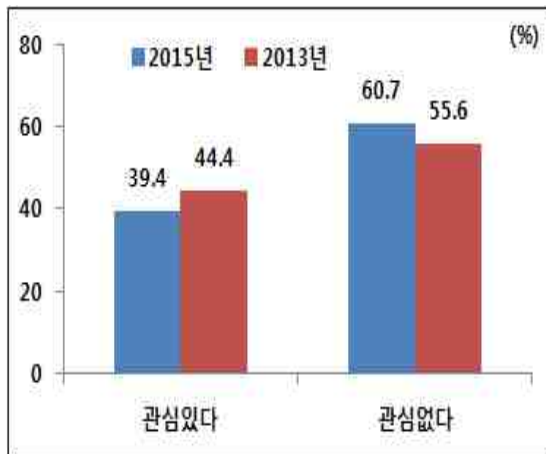
## Executive Summary

### □ 창업 관련 국민의식 변화와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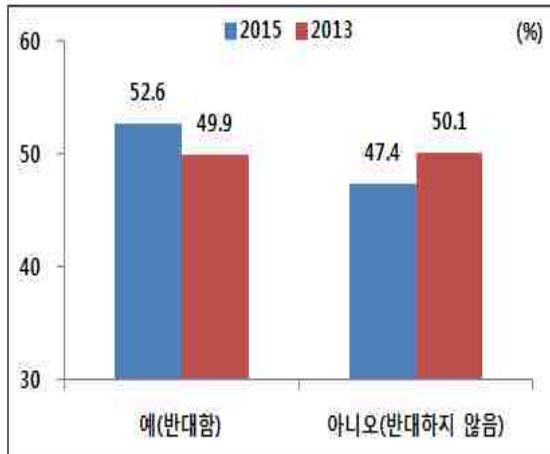
- 창업에 관심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의 39.4%로서 2년 전(2013년)의 44.4%에 비해 소폭 감소함
  - 특히, '전혀 관심 없다'는 강한 부정의 응답률은 2013년 25.9%에서 2015년 37.7%로 크게 증가하여, 창업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여전함
  - 창업에 관심 있는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,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고, 성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, 직업별로는 자영업 종사자가, 전공별로는 이공계열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았음
- 창업의 여건은 '나쁜 편'이라는 응답이 85.7%로 매우 높았음
  - 우리나라의 창업 여건은 '매우 나쁜 편'이라는 응답이 46.9%로 가장 높았고, '약간 나쁜 편'이 38.8%로서 둘을 합한 응답률이 85.7%에 달했음
- 창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창업의 여건이 열악한 이유는 '경기침체 지속'(59.2%)과 같은 외부 환경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, '정부지원 미흡'(13.4%) 때문이라는 의견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음
  -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'경기침체 지속'이라는 응답이 59.2%로서 가장 많았고, '정부지원 미흡'은 13.4%에 불과했음
- 자녀의 창업에 '반대하겠다'는 의견이 전체의 52.6%에 달하지만,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'반대하지 않겠다'는 의견이 62.1%에 달하여 '창업의 DNA'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음
  - '창업에 관심 없는 사람들'은 '자녀 창업에 반대하겠다'는 의견이 62.2%에 달하지만, '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'은 '자녀 창업에 반대하겠다'는 의견이 37.9%로 크게 떨어져, 두 그룹 간의 격차가 2배 가까이 벌어져 있음

- 창업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'나이가 들어도 오래 일할 수 있기 때문'으로 밝혀져 '고용의 불안정성'이 심각함을 반영하고 있음
  - '창업을 하려는(한) 이유'를 연령별로 살펴보면, '40대'와 '50대 이상'의 경우 "나이가 많아도 오래 일할 수 있어서"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
-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'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주는 컨설팅'과 같은 '고기 잡는 법'을 알려주는 방안이 필요함
  -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경우 '창업 자금 지원'도 중요하지만, '아이디어를 창업으로 구체화'시키는 방안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
    - 따라서, 창업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경험이 많은 멘토와의 연결 등이 요구됨
- 도·소매업, 음식·숙박업 등의 생계형 창업보다는 IT, 바이오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창업(혁신형 창업)을 유도해야 함
  - '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싶은지?' 물어본 결과, '음식·숙박업'(27.3%)과 '도소매업'(26.1%)이 가장 많았음
    - 창업이 주로 위와 같은 생계형 창업에 몰릴 경우, 이미 포화 상태인 영세 자영업에서의 경쟁을 심화시켜 '자영업 구조조정'만 악화시킬 수 있음

< 창업에의 관심 여부 >



< '자녀창업에 반대하는지' 여부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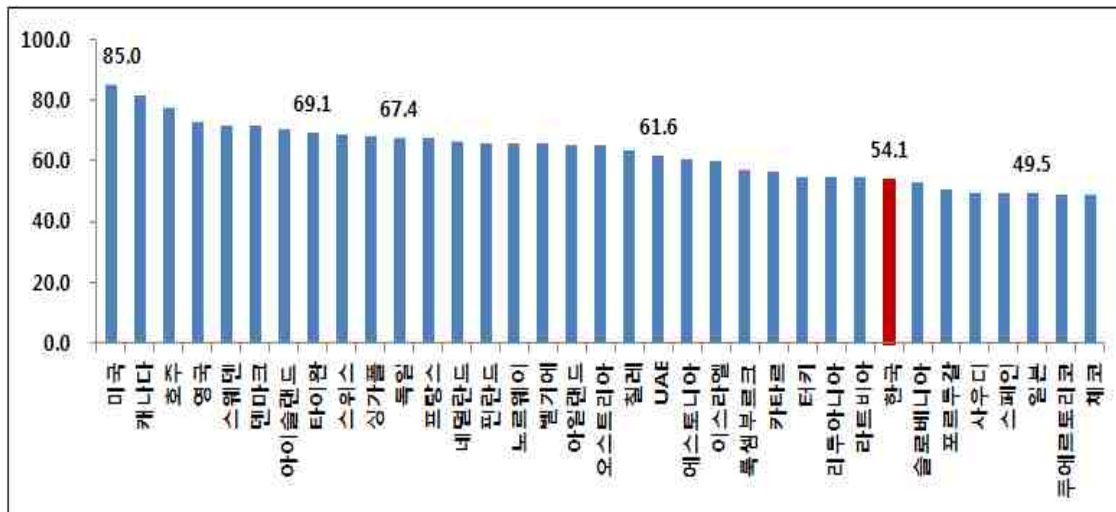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(2015년, 2013년).

주 : '관심있다'(39.4%) = "매우 관심있다"(12.1%)+약간 관심있다'(27.3%).

## 1. 저성장과 기업가정신

- 올해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3%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성장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창업과 기업가정신 고취가 절실하지만, 우리의 기업가정신지수(GEI) 순위는 28위에 그치고 있음
- ‘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’(GEDI)가 발표한 2015년 ‘세계기업가정신지수’(GEI)에 따르면,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.1점으로 130개국 중 28위를 차지함
  - 우리는 ‘타이완’(8위), ‘칠레’(19위), ‘UAE’(20위) 등에 비해서도 순위가 뒤짐
  - GEDI의 분석에 따르면, 우리나라는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15개 세부 항목 가운데 ‘공정혁신’, ‘기술흡수’, ‘제품혁신’, ‘인적자본’ 등의 항목은 우수하지만, ‘경쟁’, ‘기회포착’, ‘세계화’, ‘사회문화적 지지’ 등의 항목은 미흡)
- ‘사회문화적 지지’(cultural support)와 관련되는 ‘창업 관련 국민의식’ 실태를 살펴보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함
  - 2013년 10월의 동일한 조사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변화 추이도 살펴봄

< 세계기업가정신지수(GEI) 순위 국제비교 (2015년) >



자료 :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(GEDI), ‘2015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’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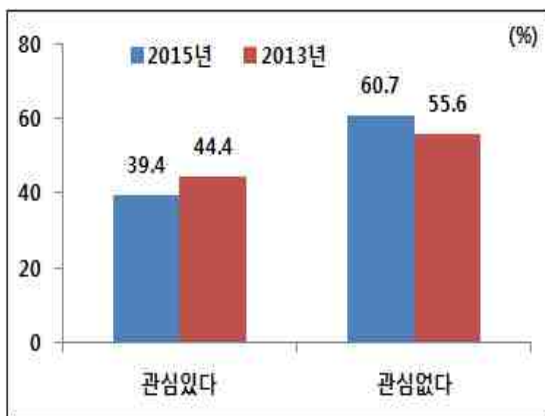
주 : 100점 만점, 조사대상 130개국 중 한국은 2015년 현재 28위.

1) ‘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’(GEDI)는 매년 11월 3주에 ‘세계기업가정신주간’ 행사를 개최하는 등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, 우리도 벤처기업협회 등에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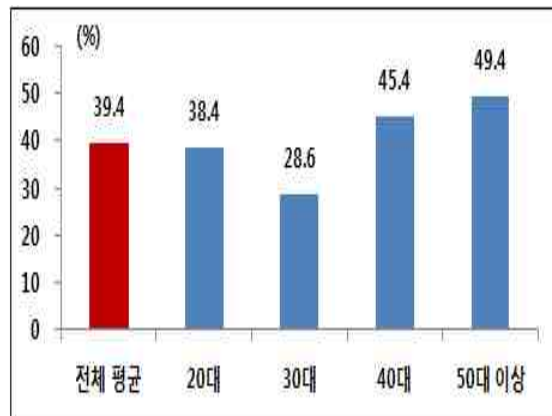
## 2. 창업에 대한 관심과 지지<sup>2)</sup>

- 창업에 관심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의 39.4%로서 2년 전(2013년)의 44.4%에 비해 소폭 감소함
  - 창업에 관심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, '관심 있다'는 39.4% '관심 없다'는 60.6%로 관심 없다는 응답이 훨씬 더 많았음
  - 2년 전(2013년)에는 '관심 있다'는 응답이 44.4%였음을 감안한다면, 창업에 대한 관심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
  - 특히, '전혀 관심 없다'는 강한 부정의 응답률은 2013년 25.9%에서 2015년 37.7%로 크게 증가하여, 창업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여전한
- 창업에 관심 있는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,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고, 성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, 직업별로는 자영업 종사자가, 전공별로는 이공계열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았음
- 연령별로 '창업에 관심있다'는 응답률을 비교해 보면, 30대가 28.6%로 가장 낮았으며, 20대 38.4%, 40대 45.4%, 50대 이상 49.4%로 나타나, 40대 이상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

< 창업에의 관심 여부 >



< '창업에 관심 있다' (연령별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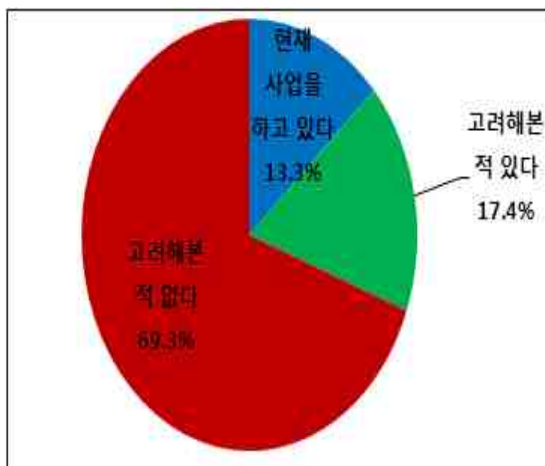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(2015년, 2013년).

주 : '관심있다'(39.4%) = "매우 관심있다"(12.1%)+ '약간 관심있다'(27.3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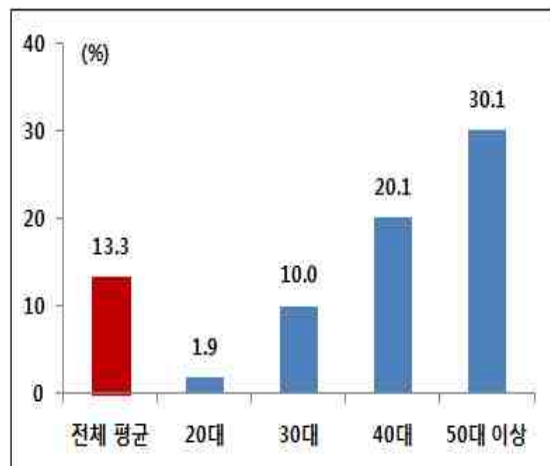
2) '창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'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818명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일주일 간 전화조사로 진행되었다. 조사의 최대 오차 범위는 95%신뢰수준에서 ±3.5%p이다. 동일한 설문 조사를 2013년 10월에도 실시한 바 있다.

- 창업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9.3%로서 10명 중 7명에 달했으며, 2년 전(2013년)의 68.1%와 큰 변화가 없음<sup>3)</sup>
  - 창업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, ‘고려해 본 적 없다’가 69.3%로 가장 많았으며, ‘고려해 본 적 있다’가 17.4%, ‘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’가 13.3%로 나타남
    - 2년 전(2013년)에는 ‘고려해 본 적 없다’는 응답이 68.1%였음을 감안한다면, 10명 중 7명은 창업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없음
  - ‘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’는 응답도 13.3%로서 2년 전의 13.5%와 비슷하며, 연령별로 보면 ‘50대 이상’이 30.1%로 가장 높음
    - ‘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’는 응답률의 연령별 추이를 보면, 20대 1.9%에서 50대 이상 30.1%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음
      - : 20대 1.9% → 30대 10.0% → 40대 20.1% → 50대 이상 30.1%
  -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10명 중 4명, 구체적으로 창업을 고민해 본 사람은 10명 중 3명, 그 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(1.3명)을 제외한다면 실제 창업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(1.7명)은 10명 중 2명이 채 안됨

< 창업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여부 >



< ‘현재 사업하고 있다’ (연령별)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(2015년).

3) 2년 전보다 1.2%p 높아졌지만, 최대 허용오차(3.5%p)에 속하므로, 유의미한 ‘증가’라고 보기 어려움.

○ 창업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'오랫동안 일할 수 있어서'(33.7%)였으며, 이는 우리 사회의 '고용의 불안정성'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됨

- '창업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본 적이 있다'거나 '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'고 응답한 분들만을 대상으로 '창업을 하려는(한) 이유'를 물어본 결과, '오래 일할 수 있어서' 라는 응답이 33.7%로 가장 많았음

· 이어서, '창업성공에 따른 성취감 때문에'(22.5%), '직장 생활보다는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'(20.5%), '직장 생활이 적성에 안 맞아서'(12.4%), '직장을 구하지 못해서'(10.8%)의 순으로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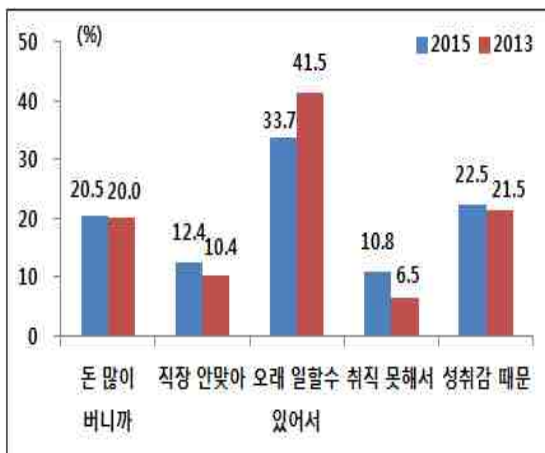
- '창업을 하려는(한) 이유'를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, 연령대에 따라서 '창업의 이유'가 서로 달랐음

· '20대'는 "창업 성공에 따른 성취감 때문에"(35.7%), '30대'는 "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"(31.6%)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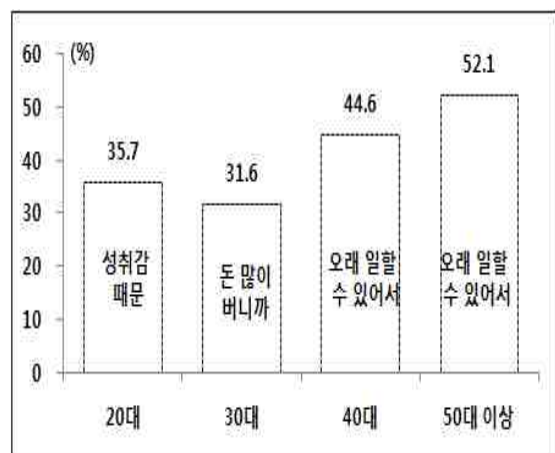
· 반면, '40대'와 '50대 이상'은 "나이가 많아도 오래 일할 수 있어서"라는 응답이 각각 44.6%와 52.1%로 가장 많았음. '40대'와 '50대 이상'의 경우, 현재 직장에서의 고용 불안감과 퇴직 후 재취업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임

- "오래 일할 수 있어서"(33.7%)라는 응답을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, 20대 10.7%, 30대 21.1%, 40대 44.6%, 50대 이상 52.1%로서 나이가 많아질 수록 응답률이 높아짐

< 창업을 하려는 이유 >



< 연령별로 가장 높은 '창업의 이유'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(2015년, 2013년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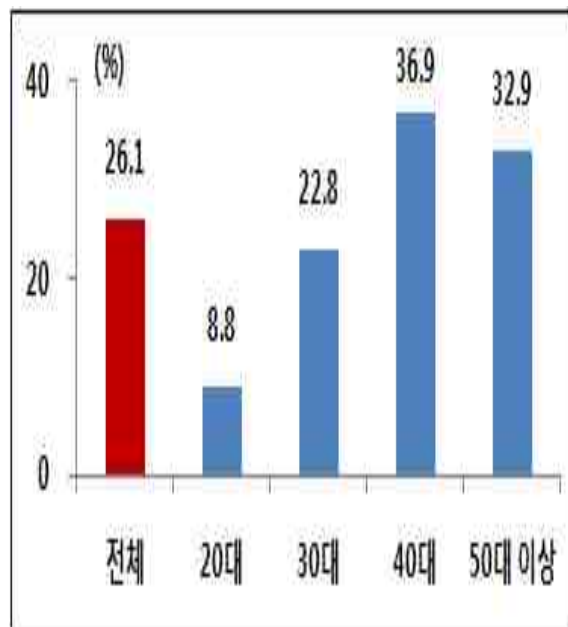
주 : 전체 응답자 중에서 창업을 고려하고 있거나, 사업 중인 분 대상(전체 응답자 약30%).

- 창업을 원하는 분야는 '음식·숙박업'(27.3%)과 '도소매업'(26.1%) 등 비교적 창업의 문턱이 낮아서 과당경쟁이 심각한 업종에 몰려 있음
  - '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싶은지?' 물어본 결과, '음식·숙박업'(27.3%)과 '도소매업'(26.1%)이 가장 많았음
  - 반면, 상대적으로 진입이 어렵고 부가가치가 높다고 알려진 'IT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' 분야는 7.2%, '바이오 및 의학' 분야는 3.6%로 낮았음
  - '도소매 유통업'의 경우 '20대'는 선호율이 8.8%에 불과했으며, '30대'는 22.8%, '40대'는 36.9%, '50대 이상'은 32.9%로서, 나이가 많아질수록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
  - '음식/숙박업'의 경우에는 반대로 젊을수록 더 선호율이 높게 나타났는데, 예를 들어 '20대'가 49.1%로 가장 높았고, '30대'는 33.3%, '40대'는 15.4%, '50대 이상'은 15.7%로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낮아짐
  - 과당 경쟁과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음식/숙박업과 도소매업에서의 창업을 줄여 나가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

< 창업을 원하는 분야 >



< 도소매/유통업에 대한 연령별 선호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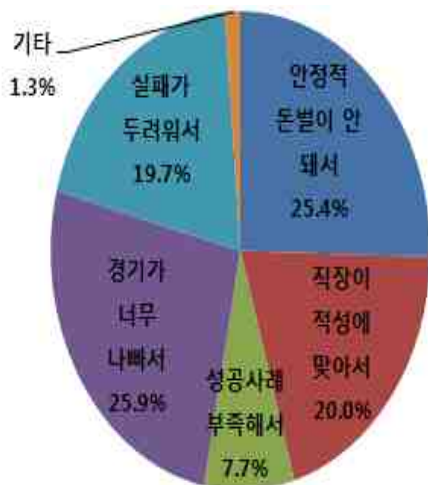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(2015년).

주 : 전체 응답자 중에서 창업을 고려하고 있거나, 사업 중인 분 대상(전체 응답자 약30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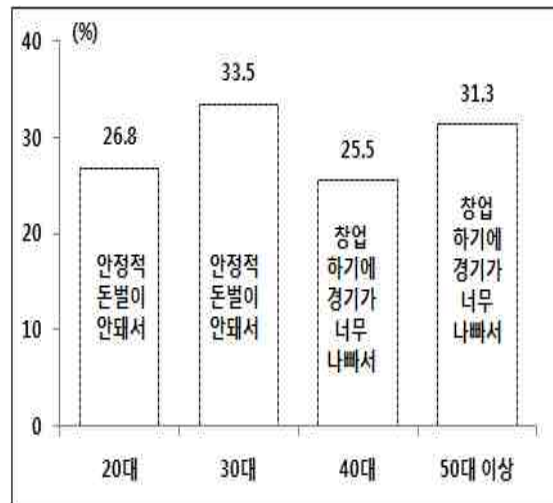


- 창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‘창업하기에는 경기가 너무 나빠서’(25.9%), ‘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없어서’(25.4%), ‘직장이 적성에 맞아서’(20.0%), ‘실패가 두려워서’(19.7%)등의 순으로 응답함
- ‘창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’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, ‘창업하기엔 경기가 너무 나빠’(25.9%), ‘안정적 돈벌이 곤란’(25.4%), ‘직장이 적성에 맞아’(20.0%), ‘실패가 두려워’(19.7%)라는 응답이 대부분
- 연령별로 20대와 30대는 ‘안정적 돈벌이가 곤란해서’, ‘40대’와 ‘50대 이상’은 ‘경기가 너무 나빠서’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
- 직업별로 ‘학생’은 ‘실패가 두려워서’, ‘사무직’은 ‘안정적 돈벌이가 곤란해서’, ‘영업/서비스직’은 ‘경기가 너무 나빠서’라는 응답이 많았음
- ‘창업에 관심은 있지만,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’(전체 818명 중 122명)은 “창업하기에 경기가 너무 나빠서”(32.8%)가 가장 많음

< 창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>



< 연령별 ‘창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’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(2015년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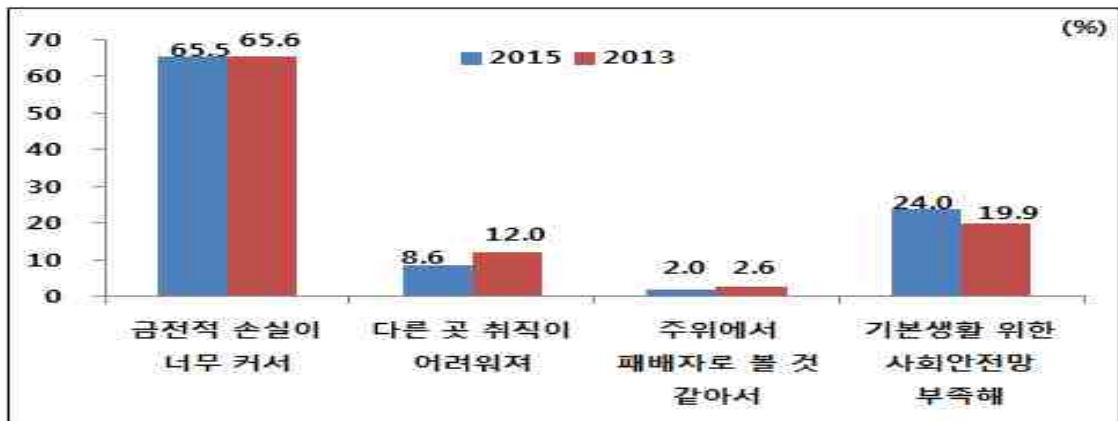
주 : 전체 응답자 중 ‘창업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’고 응답한 분들 대상 (전체의 69%).

- 창업에 실패하면 두려운 이유는 ‘금전적 손실이 커서’(65.5%)에 이어서, ‘기본생활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해서’(24.0%)가 많았음
- ‘창업에 실패하면 두려운 이유’를 물어본 결과, ‘금전적 손실이 커서’(65.5%)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, 이어서 ‘기본생활을 위한 사회안전

망이 부족해서'(24.0%)가 다음으로 많았음

- 이어서, '나이 때문에 다른 곳에 취직하기 어려워져'(8.6%), '주위에서 패배자로 볼 것 같아서'(2.0%)라는 응답은 미미했음
- 정책적으로는 '창업 실패 후 재기가 쉽도록, 개인보증 제도를 없애고,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는 등의 대책'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
< 창업에 실패하면 두려운 이유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(2015년, 2013년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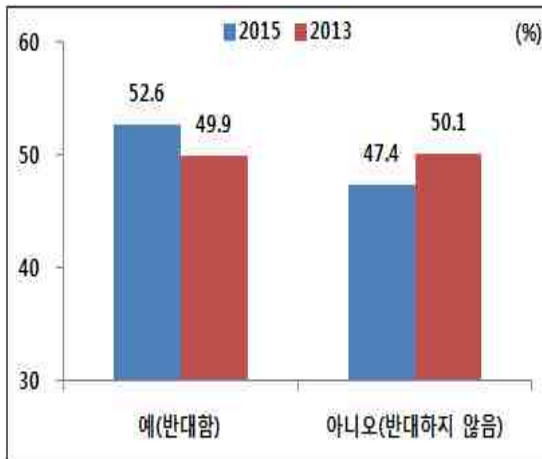
○ '자녀가 창업한다고 하면 반대 하겠다'는 응답이 52.6%로 과반을 넘었으며, 2년 전(2013년, 49.9%)처럼 찬반 의견이 50% 전후로 팽팽함<sup>4)</sup>

-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'자녀가 창업한다고 하면 반대하겠다'는 의견에 공감하는지를 물어본 결과, '예(반대함)'라는 응답이 52.6%로 과반을 넘었으며, '아니오'(반대하지 않음)라는 응답은 47.4%였음
- 직업별로 보면, 이미 창업한 '자영업' 종사자의 경우에는 '아니오'(반대하지 않음)라는 응답은 57.5%로서 '자녀의 창업에 반대하지 않겠다'는 긍정적인 의견이 평균(47.4%)보다 훨씬 높았음
  - '아니오'(반대하지 않음)라는 응답이 높은 직업은 생산직(63.2%), 학생(55.2%), 전문직(56.3%) 등이었음
  - '예'(반대함)라는 응답이 높은 직업은 사무직(57.6%)과 영업/서비스직(55.0%), 주부(52.1%) 등이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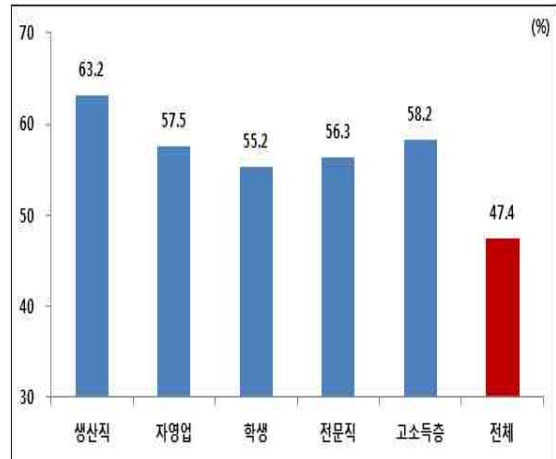
4) '자녀의 창업에 반대 하겠다'는 응답이 2년 전에 비해 2.7%p 증가했으나, 최대 허용오차(3.5%p)의 범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'증가'는 아니라고 판단함.

- '창업에 관심이 있는 계층'의 경우 '자녀의 창업에 반대하지 않겠다'는 응답률이 62.1%로 높았으며, '월소득 600만원 이상'인 고소득층의 경우에도 '자녀의 창업에 반대하지 않겠다'는 응답이 58.2%로 크게 높았음

< '자녀 창업에 반대' 하는지 여부 >



< '아니오' 응답률이 높은 그룹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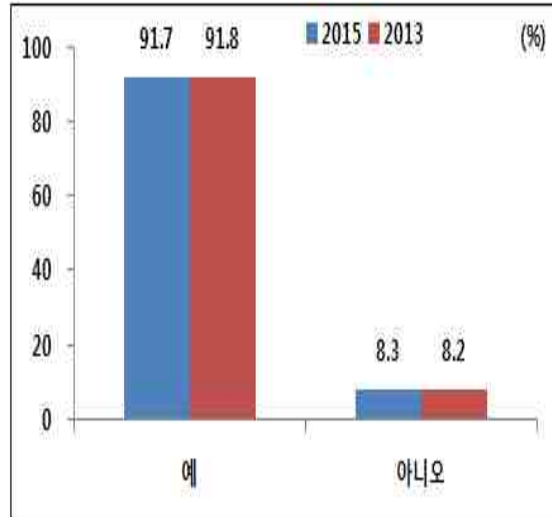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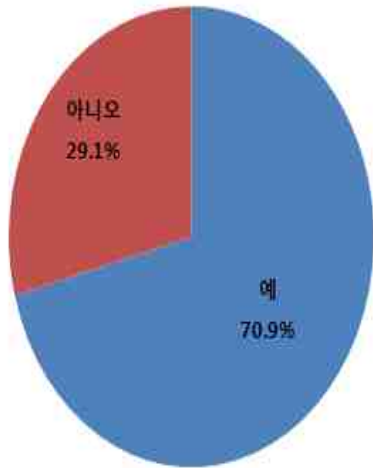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(2015년, 2013년).

주 : '고소득층'은 월소득이 '600만원 이상'인 그룹.

- '우리나라는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'라는 의견에 70.9%가 공감하고 있어서, '제도전이 가능한 사회'를 만드는 것이 시급함
  - 응답자의 70.9%(10명 중 7명)는 "우리나라는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"라고 인식하고 있음
    - '우리나라는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'라는 의견에 대해 '예'라는 응답이 70.9%에 달했으며, '아니오'라는 응답은 29.1%에 그침
    - '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'의 경우에도 '예'라는 응답이 66.5%로서 3명 중에서 2명은 '재기하기 어렵다'는데 공감하고 있었음
- '창업했다 실패하면 신용불량으로 이어진다'는 의견에 대해서도 91.7%가 공감하고 있음
  - 응답자의 91.7%(10명 중 9명)는 "우리나라는 창업했다 실패하면 개인 신용불량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"는데 공감하고 있음

- ‘우리나라는 창업했다 실패하면 개인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’는 의견에 대해 ‘예’라는 응답이 91.7%에 달했음
- 창업하고 있는 ‘자영업자’의 경우에도 공감한다는 의견이 93.3%로 높음
- ‘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’의 경우에도 공감한다는 의견이 89.8%로 높음

< 실패 시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이다 > < 창업 후 실패하면 신용불량 된다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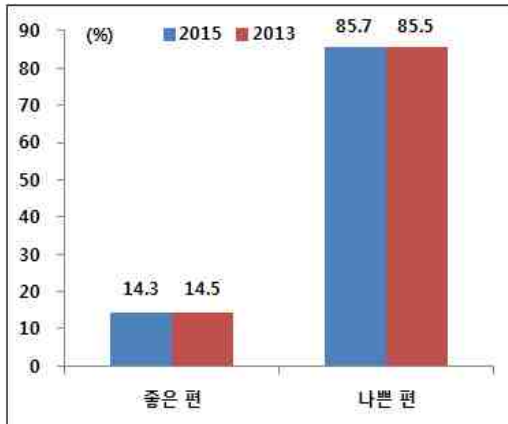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(2015년, 2013년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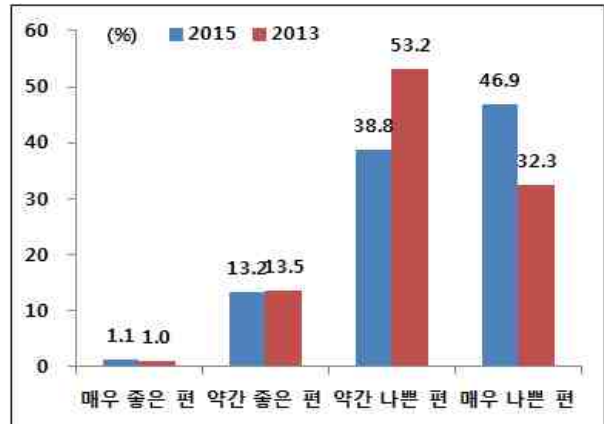
### 3. 창업의 여건과 준비

- 창업의 여건은 ‘나쁜 편’이라는 응답이 85.7%로 매우 높았으며, 이는 ‘경기’ 등 외부 환경이 나쁘다는 것으로서 ‘정부’를 탓하는 것은 아님
- ‘우리나라의 창업 여건은 어떠하다고 생각하나요?’라는 질문에 대해 ‘매우 나쁜 편’이라는 응답이 46.9%로 가장 높았고, 이어서 ‘약간 나쁜 편’이 38.8%로서 둘을 합한 응답률이 85.7%에 달했음
- 반면, ‘약간 좋은 편’은 13.2%, ‘매우 좋은 편’은 1.1%로서 둘을 합한 응답률이 14.3%에 그침
- 2년 전(2013년)에 비하면, ‘매우 나쁜 편’이라는 응답이 32.3%에서 46.9%로 크게 증가했지만, ‘경기침체 지속’과 같은 외부 환경적 요인이 크며 ‘정부지원 미흡’과 같은 정책적 요인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음)

< 창업을 위한 여건(1) >



< 창업을 위한 여건(2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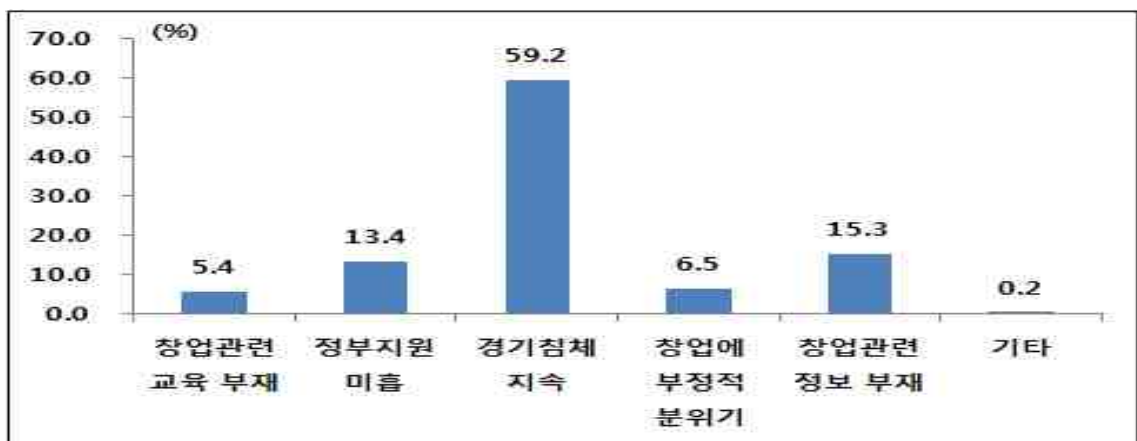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(2015년, 2013년).

○ 창업의 걸림돌로서 '경기침체 지속'(59.2%)과 같은 외부 환경요인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고, '정부지원 미흡'(13.4%)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음

- '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?'라는 질문에 대해 '경기침체 지속'이라는 응답이 59.2%로 가장 높았고, 이어서 '창업관련 정보 부재'(15.3%), '정부지원 미흡'(13.4%), '창업에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'(6.5%), '창업관련 교육 부재'(5.4%)의 순으로 응답함

· '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'는 지적은 13.4%로서 생각보다 낮게 나타남

<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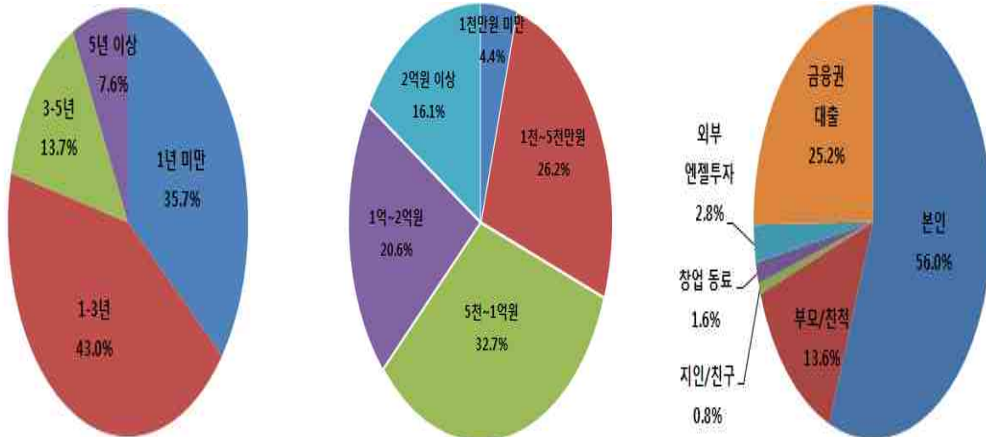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(2015년).

5) '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'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'경기침체 지속'이라는 응답이 59.2%인데 반해, '정부지원 미흡'은 13.4%에 불과했음.

- 창업 준비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1.8년, 창업 자금은 최소한 1억 원 정도 필요하며, 창업 자금의 주된 출처는 '본인'이라고 응답함
  - '창업 준비에 필요한 기간'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본 결과, '1년 이상, 3년 미만'이라는 응답이 43%로서 가장 많았고, '1년 미만'도 35.7%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, 평균적으로 준비기간이 1.8년 소요됨
    - 이어서, '3-5년 미만' 13.7%, '5년 이상' 7.6%로서 3년 이상 비교적 오랫동안 준비하는 경우는 21.3%(5명 중 1명)에 달했음
    - 창업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연령별로 나눠서 살펴보면, 20대는 1.8년, 30대 1.9년, 40대 1.9년, 50대 이상 1.7년으로 나타나, '50대 이상' 고령층의 창업 준비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음
    - 창업에 '관심 있는 사람'이 '관심 없는 사람'보다 준비기간이 더 길었으며, 직업별로 보면 '자영업 종사자'와 '학생'의 준비기간이 더 길었음
  - '창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'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본 결과, '5천만원 이상, 1억원 미만'이라는 응답이 32.7%로 가장 많았고, '5천만원 미만'이 26.2%, '1억원 이상, 2억원 미만'이 20.6%였으며, 평균 1억 60만원이었음
    - 이어서, '2억원 이상' 16.1%, '1천만원 미만' 4.4%였음
    - 연령별로 나눠서 살펴보면, 20대는 6,840만원, 30대는 1억1,110만원, 40대는 1억830만원, 50대 이상은 1억1,180만원으로 나타남
    - 직업별로 보면, 학생은 6,830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, 자영업 종사자는 1억2,340만원이었고, 전문직 종사자가 1억 5,250만원으로 가장 높았음
  - '창업 자금의 주된 출처'는 '본인'이라는 응답이 56.0%로 가장 많았고, '금융권 대출'이 25.2%, '부모/친척'이 13.6%의 順으로 대부분(94.8%)을 차지
    - '외부 엔젤투자' 2.8%, '창업 동료' 1.6%, '지인/친구' 0.8% 등은 미미함
    - 연령별로 나눠서 살펴보다도 위와 같은 자금조달의 순서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, '본인'이라는 응답률을 보면, 20대는 36.8%, 30대는 57.9%, 40대는 53.8%, 50대 이상은 71.8%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
    - 학생의 경우에 1순위가 '부모/친척'(36.8%)였고, '본인'은 26.3%로 2순위, '금융권 대출'은 21.1%로 3순위

< 창업준비에 필요한 기간 > < 창업에 필요한 최소자금 > < 창업자금의 주된 출처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(2015).

주 : 창업을 고려하고 있거나, 사업 중인 분 대상(전체 응답자 818명 중 250여명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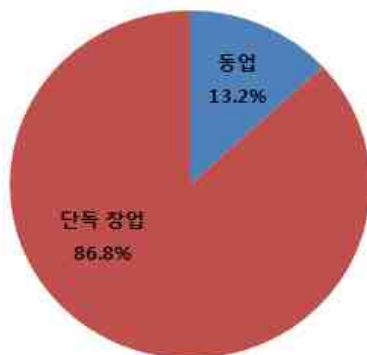
○ 선호하는 창업 형태를 물어본 결과, 5명 중 4명 이상은 '단독 창업'(86.2%)이라고 답했으며, '동업'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3.2%에 불과

- '단독 창업과 동업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' 물어본 결과, '단독 창업'이 86.8%로서 압도적이었으며, '동업'은 13.2%에 불과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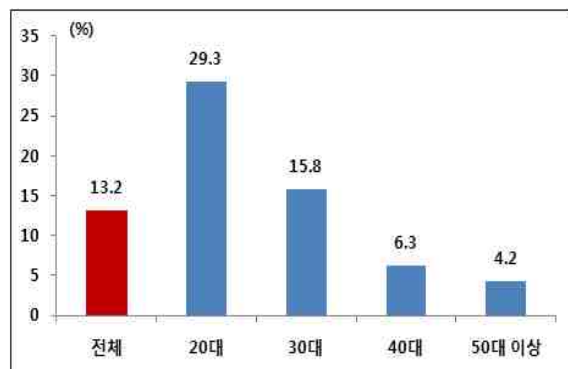
· 연령별로 보면 '50대 이상'은 '동업'에 대한 선호가 4.2%에 불과했으나, 40대는 6.3%, 30대는 15.3%, 20대는 29.3%로서 젊을수록 높아짐

· 직업별로 '단독 창업'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컸는데, 예를 들어, '자영업'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95.7%로 높았지만, '사무직'은 83.6%, '영업/서비스직'은 76.9%, '학생'은 73.7%, '전문직'은 50.0%였음

< 선호하는 창업 형태 >



< '동업'에 대한 연령별 선호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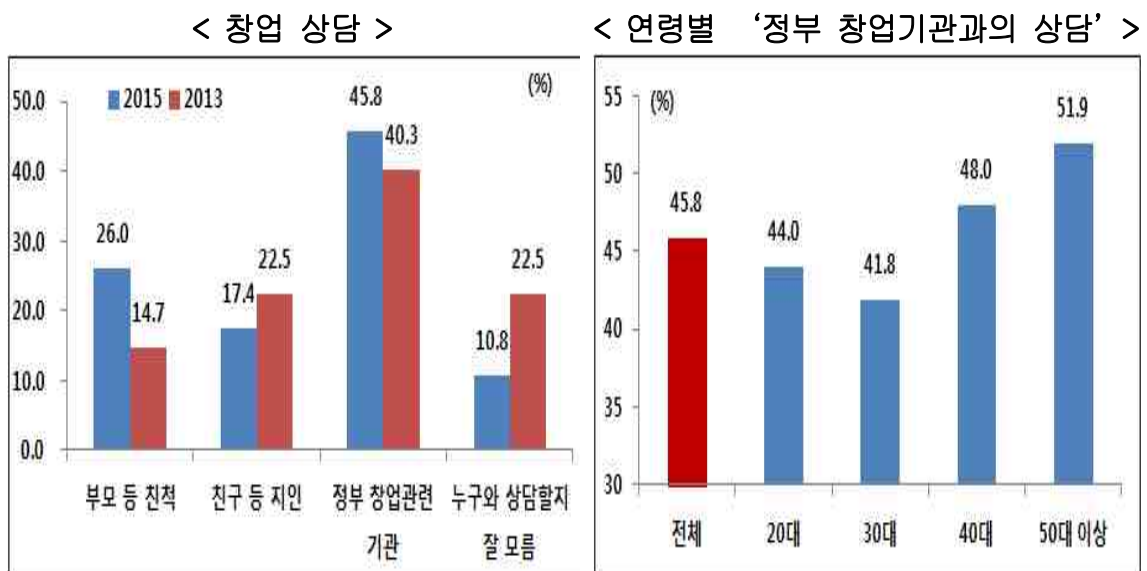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(2015).

주 : 창업을 고려하고 있거나, 사업 중인 분 대상(전체 응답자 818명 중 250여명).

○ 창업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의 상담 순서는 '정부 창업관련 기관'(45.8%), '부모/친척'(26.0%), '친구/지인'(17.4%) 등이었음

- 창업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, '정부 창업 관련 기관'과 상담하겠다는 사람이 45.8%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는 '부모 등 친척' 26.0%, '친구 등 지인' 17.4%였고, '누구와 상담해야 할지 모르겠다'는 응답은 10.8%
  - 2년 전(2013년)에는 '누구와 상담해야 할지 모르겠다'는 응답이 22.5%에 달했으나, 이번 조사에서는 10.8%로 감소하여, 그동안 창업 관련 정보와 교육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
- 직업별로 보면,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'자영업 종사자'의 경우에는 '정부 창업기관'과 상담하겠다는 응답률이 30.8%로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, '부모 등 친척'과 상담하겠다는 응답률은 31.7%로서 가장 높았음
  - '정부 창업관련 기관'과 상담하겠다는 비율을 보면, '사무직'의 경우 49.6%로 높았으며, '학생'의 경우에도 45.7%로 높은 편인데 반해, '자영업' 종사자의 경우 30.8%에 불과함
- 나이가 많을수록 '정부 창업관련 기관'과 상담하겠다는 응답률이 높아지는 데, 예를 들어 20대는 44.0%였으나, 50대 이상은 51.9%로 상당히 높아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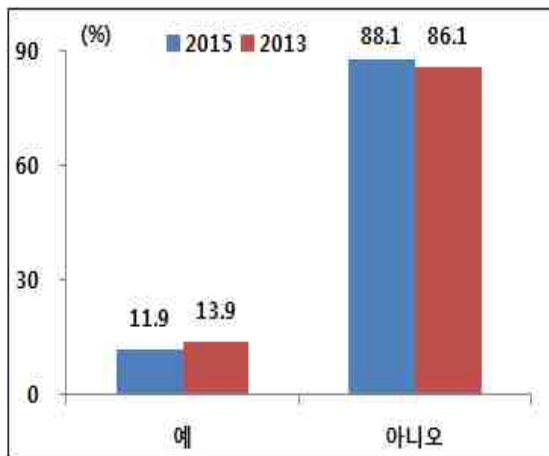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(2015, 2013).



○ 창업 관련 교육을 받은 적 있는 사람은 10명 중 1명(11.9%)에 불과했으며, 사업을 하는 '자영업자'도 10.0%만이 교육을 받은 적 있다고 응답

- 창업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 10명 중 1명(11.9%)에 불과하여 창업이 활성화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
- '귀하는 학교를 다니면서 창업과 연관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?'라는 질문에 '예'는 11.9%, '아니오'는 88.1%를 기록
- 남자(16.8%)가 여자(7.4%)보다 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, 이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남자가 더 높다는 점과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연령별로는 '20대'(18.7%)의 경우, 직업별로는 '학생'(24.8%)의 경우에 창업 관련 교육 경험이 많게 나타남

< 창업관련 교육을 받은 적 있나요? >



< '창업교육' 이수율 높은 그룹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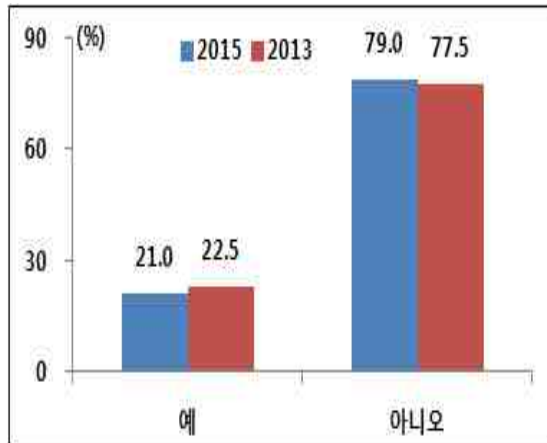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(2015, 2013).

○ 창업의 방법을 알고 있는 분은 10명 중 2명(21.0%)에 불과했으며,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조차도 3명 중 1명(33.2%)만 '예'라고 응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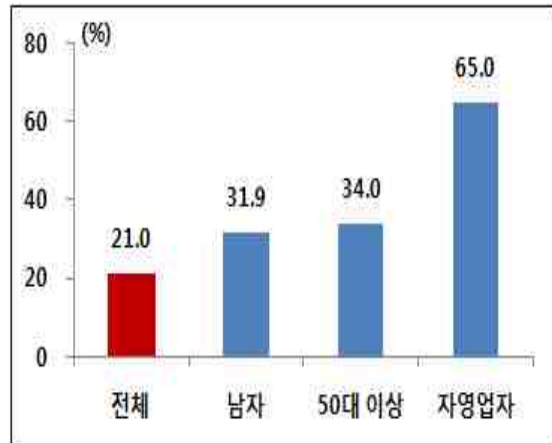
- '창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(창업 방법)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?'라는 질문에 '예'라는 응답은 21.0%에 불과했고, '아니오'는 79.0%에 달함
- '창업에 관심 있다'고 응답한 사람들 중 '예(알고 있다)'라는 사람은 33.2%로서 상대적으로 높지만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님
- 성별로는 남자(31.9%)가 여자(11.3%)보다 '예'라는 응답률이 훨씬 높았음

- 연령별로는 '20대' 14.6%, '50대 이상' 34.0%로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'예 (알고 있다)'라는 응답이 높아지고 있으며, 직업별로는 '자영업' 종사자의 경우 '예(알고 있다)'라는 응답이 65.0%로 가장 높았음

< 창업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? >



< '창업 방법' 숙지율 높은 그룹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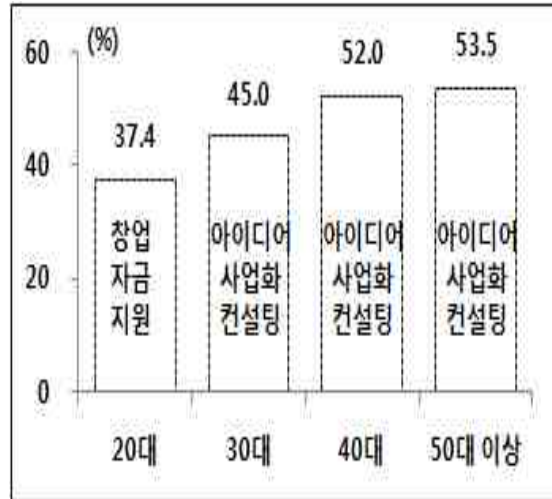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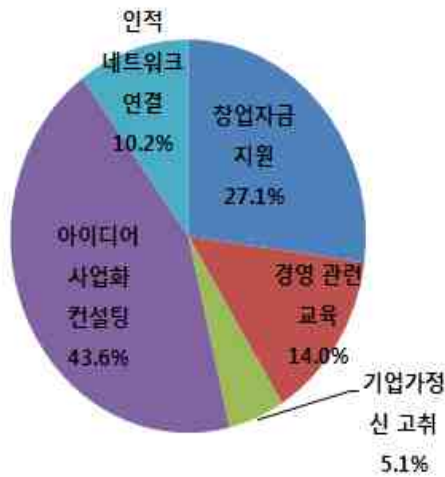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(2015, 2013).

#### 4.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

-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'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주는 컨설팅'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3.4%로 가장 많았음
  - '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'라는 질문에 '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주는 컨설팅'이라는 응답이 43.4%로 가장 많았으며, 이어서 '창업자금 지원' 27.0%, '기업경영 관련 교육' 13.9%, '인적 네트워크 연결' 10.1%, '기업가 정신 고취' 5.1%, '기타' 0.5%의 順
  - '사업 아이디어 구체화 컨설팅'에 대한 응답률을 연령별로 보면, '20대' 30.6%, '30대' 45.0%, '40대' 52.0%, '50대 이상' 53.5%로서, 나이가 많을수록 그 응답률이 높아지고 있음
  - '창업자금 지원'이라는 응답을 연령별로 보면, '20대'는 37.4%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자금 조달 환경을 열악함을 반영하고 있음

며, '30대'부터는 '사업 아이디어 구체화 컨설팅'의 응답률이 가장 높음  
 · '20대' 37.4%, '30대' 45.0%, '40대' 52.0%, '50대 이상' 53.5%로서, 나이가  
 많을수록 '창업자금 지원'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드러냄

< 청년 창업 활성화 위해 가장 필요한 것 > < 연령별 '창업 활성화 최우선 과제' 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(2015).

## 5. 시사점

- 첫째, 창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창업의 여건이 열악한 이유가 '정부지원 미흡' 때문이 아니라 '경기침체 지속'과 같은 외부 환경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음에 따라, 향후 경기가 회복되면 창업의 분위기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
  - 경기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창업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고민도 더 많아질 것이며, 창업의 분위기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
  -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'경기침체 지속'이라는 응답이 59.2%로서 가장 많았고, '정부지원 미흡'은 13.4%에 불과했음
- 둘째, 자녀의 창업에 '반대하겠다'는 의견이 전체의 52.6%에 달하지만,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'반대하지 않겠다'는 의견이 62.1%에 달하여 '창업의 DNA'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음

- '창업에 관심 없는 사람들'은 '자녀 창업에 반대하겠다'는 의견이 62.2%에 달하지만, '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'은 '자녀 창업에 반대하겠다'는 의견이 37.9%로 크게 떨어져, 두 그룹 간의 격차가 2배 가까이 벌어져 있음
- 셋째, 창업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'나이가 들어도 오래 일할 수 있기 때문'으로 밝혀져 '고용의 불안정성'이 심각함을 반영하고 있음
  - 결국,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고, 재취업이 쉽도록 은퇴 이후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것이 '생계형 창업'을 최소화하고, '자영업의 과당경쟁'과 '구조조정'을 예방하는 첩경임
  - '창업을 하려는(한) 이유'를 연령별로 살펴보면, '40대'와 '50대 이상'의 경우 "나이가 많아도 오래 일할 수 있어서"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
- 넷째,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'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주는 컨설팅'과 같은 '고기 잡는 법'을 알려주는 방안이 필요함
  -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주는 컨설팅 방안이 필요함
  -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경우 창업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,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
  - 따라서, 창업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멘토와의 연결 등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됨
- 다섯째, 도·소매업, 음식·숙박업 등의 생계형 창업보다는 IT, 바이오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창업(혁신형 창업)을 유도해야 함
  - 창업이 주로 위와 같은 생계형 창업에 몰릴 경우, 이미 포화 상태인 영세 자영업에서의 경쟁을 심화시켜 '자영업 구조조정'만 악화시킬 수 있음

김동열 정책조사실장 (2072-6213, dykim@hri.co.kr)

<별첨 1>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표

- 조사 기간 : 2015년 10월 15일 ~ 2015년 10월 27일(13일간)
- 조사 주체 : 현대경제연구원
- 조사 방식 : 전화설문 조사
- 조사 대상 :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818명
- 최대 허용오차 : 95% 신뢰수준에서 ±3.5%p

전 체		사례수(명)	비중(%)
		(818)	100
성별	남 자	(386)	47.2
	여 자	(432)	52.8
연령	20 대	(268)	32.8
	30 대	(220)	26.9
	40 대	(174)	21.3
	50대 이상	(156)	19.1
직업	사무직	(381)	46.7
	영업 및 서비스	(60)	7.4
	생산직	(19)	2.3
	자 영 업	(120)	14.7
	주 부	(73)	8.9
	학 생	(105)	12.9
	농림어업	(4)	0.5
	전문직	(16)	2.0
	무직/기타	(38)	4.7
소득수준	200만원 미만	(156)	20.3
	400만원 미만	(352)	45.7
	600만원 미만	(183)	23.8
	600만원 이상	(79)	10.3
학력	고등학교이하	(138)	16.9
	대졸 이상	(677)	83.1
지역	서 울	(167)	20.4
	인천/경기	(218)	26.7
	대전/충청	(85)	10.4
	광주/전남/전북/제주	(104)	12.7
	부산/울산/경남	(130)	15.9
	대구/경북/강원	(114)	13.9
결혼	기혼	(438)	54.2
	미혼	(370)	45.8
전공	이공 계열	(247)	31.5
	비이공 계열	(538)	68.5
창업관심	있다	(322)	39.4
	없다	(496)	60.6